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26.09.09, 한-EU연구협력센터>

○ 차기 FP10 예산 '대폭 증액' 전망(9.2)

- 지난해 집행위는 FP10 예산으로 물가를 반영한 1,750억 유로를 제안했으며, 이는 현행 호라이즌 유럽의 935억 유로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임
- 반면 지난 6월 키프로스 EU 이사회 의장국이 제시한 1,680억 유로안은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으며, 특히 EU 예산 순기여국 일부 정상들은 보다 큰 폭의 지출 삭감을 요구함
- 그럼에도 제임스 톨리스(James Lawless) 아일랜드 연구 장관은 최종적으로 예산이 현행 프로그램보다 상당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봄

○ 유럽의회, 차기 호라이즌 유럽-ECF 연계에 우려 제기(9.2)

- 유럽의회 의원들은 차기 호라이즌 유럽과 ECF의 연계가 상향식·기초연구 지원을 약화해서는 안 된다고 의장국에 구체적인 보장안을 요구함
-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톨리스 장관은 호라이즌 유럽이 ECF에 종속돼서는 안 되며 두 프로그램의 연계는 구 아이디어에서 시장 도입까지 이어지는 과정의 분절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
- 3자 협상에 앞서 유럽의회는 9월 상임위원회와 10월 본회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확정할 예정임

○ 집행위, 9월 9일 '혁신법' 제안 발표(9.7)

- 유럽혁신법(European Innovation Act) 법안은 공공 연구개발 조달을 혁신 촉진 수단으로 강화하고, 지식재산권(IP)을 활용한 자금조달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둘 전망이다
- 혁신법은 EU 스타트업·스케일업 전략의 주요 입법 과제로, 혁신 기술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연구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목표로 함
- 또한 지식재산권(IP)을 활용한 금융 활성화도 추진하며, 특허 등 연구 성과의 경제적 가치 평가와 수익화 체계 마련을 목표로 함

○ (기타) ▲EU, 공공조달 개편 통해 중국 의존도 축소 추진(9.7) ▲AI·머신러닝, MSCA 최대 지원 분야로 부상(9.8) ▲ERC Starting Grant 경쟁률 역대 최고... 선정률 9% 아래로 하락(9.3)